

다산포럼



강진감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전 경기대 교수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다. 이 갈등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밑바닥에는 20세기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의 차이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신념에 확신을 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

실학 연구를 되돌아보면 20세기 실학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소환된 실학자는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이다.

이 세 실학자의 공통점은 모두 관직에 진출하지 않았거나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곧 유배를 떠나 평생 재야 지식인으로 살았다는 점이다.

‘갈등 사회’에 필요한 지혜를 실학에서 찾다

반계 유형원은 두 살 때 부친 유음이 유몽인의 광해군 복립 시도 사건에 연루되어 옥사한 아픔을 지니고 평생을 살았다. 성장한 후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고, 이후 우반동에서 은거 생활을 하며 저술에 몰두하면서 ‘반계수록’이라는 대작을 남겼다.

성호 이익도 형 이잠이 장희빈을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역적으로 몰려 고문을 받은 끝에 옥사한 후 과거에 응시할 뜻을 버렸다. 그리고 평생을 점성리에 집거하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다산 정약용은 관료 생활을 하였으나, 정조 사후 유배를 떠난 후 관직에 복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들은 재야 지식인으로 살았기에 철저한 개혁 사상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조선 후기 사회를 전면적으로 비판하였다. 조선 후기 유교 사회는 이들 실학자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땅국의 길로 가서 조선 사회는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20세기 전반 식민지 시대 지식인들은 땅국의 길로 가는 조선 사회를 전면적으로 비판한 이들 재야 지식인 실학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사상과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는 근대화화 및 민주주의 확립, 민족주의 정립이 시대적 과제였다. 이 시기 한국인들

은 한국 사회를 새로운 근대 사회로 개편하였다. 조선 후기 사회를 전면적으로 비판한 재야 지식인 실학자의 개혁 사상은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의 사회적 요구와 부합하였다. 20세기 후반 근대화를 지향하는 집단,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집단, 비민주적인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 사회를 정립하려는 집단, 이 모든 이들에게 조선 후기 재야 지식인 실학자의 개혁 사상은 소환이 가능한 사상이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20세기와 달리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나 사회적 갈등의 통합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개혁이 갈등이 아니라 협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를 요구되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입장의 차이가 ‘맞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치와 통합은 그 같은 인식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21세기에 새롭게 주목할 실학자는 조선시대에 재상을 지낸 김육이다. 정치가이자 전문적인 관료인 김육은 17세기 최대의 난제이자 개혁 과제인 대동법을 실현시킨 인물이다. 대동법 개혁 과정에서 당파적 차이를 초월하여 협치를 이끌어 냈고, 마침내 대동법 개혁을 이룩한 것이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실학자는 김육이다. 우리는 김육에게서 그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NGO 칼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광주-전남 지역의 가을-겨울 가뭄이 심각합니다. 광주시는 동북댐의 저수율이 20%대까지 내려가자 식수원 비상 관리에 들어갔고, 물 절약을 호소하는 문자를 연일 시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일까요?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의 강수량은 79일입니다. 최근 5년 평균(106일)에 비해 약 30일 적게 내렸습니다. 30mm 이상 내린 날은 옛 새 정도이고, 1mm-30mm 내린 날이 49일입니다. 무강수 일수는 330여 일 중 250여 일이나 됩니다.

강수 일수가 적으니 강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의 강수량은 739mm입니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같은 기간 평균 연 강수량이 1310mm이니 예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의 비만 내렸습니다. 실제 3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 동안 평년보다 적게는 20mm에서 많게는 220mm 적게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 기간인 7-8월에는 평년에 비해 약 340mm 적게 내리, 마른 장마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저수율은 12월 12일 기준 67.4%이지만, 전남은 46.4%입니다. 경기 89.9%, 강원 93.3%에 비해 절반 정도이고, 평년 대비 75% 수준입니다.

기후 위기와 물 부족

환경부에서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하천(강)물이 말라서 하천수, 댐, 저수지 등 수자원 시설물에 공급되는 물이 부족할 경우 ‘갈수 예보’를 합니다. 갈수 예보 발령은 통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뉩니다. 그중 심각 단계는 갈수의 전개 규모와 범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위기 발생이 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주암댐 인근의 여천-광양 공업지구에 전력 및 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이 현재 최하위 등급인 ‘심각’ 단계에 이르렀으며, 광주의 또 다른 식수원인 동북댐도 ‘심각’ 수준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기후 위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극심한 홍수와 가뭄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기존 태풍의 공식을 깬 태풍 힌남노처럼 한반도가 기후 위기의 경향성에 따라 지금의 가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를 전망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시나리오’(RCP2.6) 광주-전남 지역 강수량 전망도 가을철과 겨울철 강수량이 중장기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를 가뭄과 물 부족의 첫 번째 근거로 삼는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물 소비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평년과 다른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가운데, 물 소비의 증가는 물 부족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총급수량과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급수량과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이 지난 2009년 각각 57억 6000만㎥, 274ℓ에서 2020년에는 66억 5100만

㎥, 295ℓ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물 사용의 증가는 가뭄과 더해져 물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물 부족 문제, 특히 식수 문제는 사람들의 물 사용량이 적어지거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는 시설 용량을 키우는 것보다 새는 물을 막거나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화장실, 욕실, 세탁, 주방에서 물을 절약하고, 상업 시설과 산업 시설에서도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광주에서 연일 문자와 홍보 메시지를 통해 물 절약 방법을 소개하고 실천을 호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일 1인 사용량을 20% 절감하여 내년 장마 시기까지 버텨 준다면, 급수 제한 없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디언 가우제 지내듯이 비만 내리기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시민 실천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가뭄 발생 빈도, 용수 이용량, 수자원 공급 시설 등을 기반으로 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가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히 교체하는 등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절수 시스템과 제품이 의무적으로 설치·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가뭄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고



신우진
광주시민인문학 사무국장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의 숲’)는 그의 출세작이자 명작이다. 이 소설의 원제 ‘노르웨이의 숲’은 오늘의 젊은 세대들의 원색적인 욕망과 슬픈 상실의 갈등을 노래한 ‘비틀스’의 유명한 음악 ‘노르웨이의 숲’을 상징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젊은 날엔 누구나 울창한 숲속 한 그루 나무 같은 고독 속에서, 꿈과 사랑과 정은 사람들을 차례차례 잃어가는 상실의 아픔을 겪기 마련이다. 소설은 17세에서 30대까지의 그 젊은 날의 감미롭고, 황홀하고, 애절한 슬픔에 찬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로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 작품이 30여년간 한결같이 아무리 시대와 장소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상실과 재생을 위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키는 서두에서 “제가 여기서 그려내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간명한 테마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소설 ‘노르웨이의 숲’이 주는 울림

동시에 한 시대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의 무게에 맞서는 것이 동시에 외부 사회의 무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구나 그 싸움에서 살아남게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꿈과 이별, 우정과 사랑... 젊은 시절 누구나 겪게 되는 환희와 상실 그리고 재생의 이야기로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애절한 감성으로 독자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애인이 죽고 정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건 모든 애절하고 가슴을 저미는 추억이, 마치 꿈속에서 보던 것일지 모르지만, 감미롭고, 황홀한 사랑의 이야기로 승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키의 작품 세계는 하찮은 것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섬세한 관심을 통해, 오늘날 젊은이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통과의례처럼 표출하는 데 있다. 이 점이 곧 30여 년이 지나도록 젊은 독자들을 사로잡는 그의 마성적인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실의 시대’가 내 인생의 책이고 내 삶의 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삶에서 인상 깊었던 책 한 구절은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이다. 17세 그때의 나는 그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공기덩어리로서 몸 안에서 느꼈다.

그때까지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죽음은

언젠가는 확실히 우리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게 된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음에 붙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논리적인 명제로 생각되었다. 삶은 이쪽에 있으며, 죽음은 저쪽에 있다. 나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는 없다.

그러나 나로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죽음을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 따위가 아니다. 죽음은 나라는 존재 속에 본질적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그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삶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죽음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17세에 우연히 이 소설을 처음 접하고 다음 장이 너무 궁금하여 단숨에 밤을 새우며 읽었던 강렬한 기억이 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느꼈던 멍때림과 기묘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시니컬하면서도 따스한 문체가 일품이었고 세련된 터치와 가벼움의 미학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신선하게 다가왔고,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반대로 죽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변증법적 깨달음을 주었다. 무엇보다 삶에 관하여 진지하고 실존적인 성찰을 하게 하고 인생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또는 세계관에 영향을 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하게 했다. 어쩌면 진정하고 철저한 자유인의 삶을 가능하게 했는지 모른다.

社說

‘트리플데믹’ 우려...추가백신 접종 적극 참여를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독감과 감기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Tripledem)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제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5667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9월 12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았다.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하며 신규 확진자가 전보다 줄었지만, 1주일 전인 지난 5일과 비교하면 2514명 늘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이날 1937명이 신규 확진됐다.

특히 광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광주 지역 이날 첫째 주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669명으로 전주 대비 9.7%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도 122.1명으로, 17개 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높았다. 설상가상으로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과 감기 환자들까지 늘고 있다. 광주 지역 병원에 따르면 이날 들어 기침과 두통, 발열,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지난달에 비해 10~20% 이상 증

가했다. 문제는 모임과 이동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호흡기 감염증 환자들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세 바이러스 모두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보니 구별조차 어려워 치료에도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호흡기 질환 확산세 등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그동안 백신 접종으로 얻은 국민의 면역력이 감소한 반면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다행히 어제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도 코로나19 6개월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유일한 방역 수단인 백신 접종에 고위험군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양금덕 할머니 서훈 취소 정부 인식 우려된다

정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와 서훈(국민훈장 모란장)을 사실상 취소하자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엇그제 광주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양금덕 할머니에게 시민들의 뜻을 모아 ‘우리들의 인권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국가 인권위가 지난 9월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로 양 할머니를 선정해 놓고 돌연 취소하자 별도로 이 행사를 마련했다. 양 할머니는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운동의 대모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양 할머니의 수상에 제동을 건 쪽은 외교부다. 외교부는 상훈 담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사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외교부가

지난 7월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강제 징행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논의되는 강제 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라인 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정치권도 일제히 정부의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 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지난해 우리 단체가 받은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더 이상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상훈마저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는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양 할머니에게 당초 계획대로 서훈을 수여해야 한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인에게 나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출생 연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제 태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친구와 선후배를 구분지어 호칭을 정하고 가부장적 서열을 결정짓는다. 유일하게 한국에만 나이를 세는 기준이 세가지나 있는 이유다.

국제 표준은 ‘만 나이’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몇 년 며칠이 지났다고 세는 ‘일할 계산법’으로 보함에 가입할 때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일명 ‘보통 나이’라고도 한다.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도 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식이다. 신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나이를 국회사에서 민법 및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6월부터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간주하기로 했다. 당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한 두 살 어리러지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 후 허가 바뀌면 떡국을 먹을 텐데 어린 자녀에게 나이를 줄여 설명해야 하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어찌됐든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깨소통 활성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흔란이 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대세이지만 법적·공적 사안에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입학과 음주·흡연 등 청소년과 관련된 법을 적용할 때나 징집을 위한 병역법에선 연 나이를 사용한다.

미국 CNN은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가수 싸이의 나이를 사례로 들어 한국의 복잡한 나이 계산법을 소개했다. 싸이는 1977년 12월 31일생으로 만 나이로는 44세지만 연 나이로는 45세가 되고 세는 나이로 하면 46세라는 것이다.

나이 계산법

국회에서 민법 및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6월부터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간주하기로 했다. 당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한 두 살 어리러지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 후 허가 바뀌면 떡국을 먹을 텐데 어린 자녀에게 나이를 줄여 설명해야 하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어찌됐든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깨소통 활성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